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랑하면 운명이 뒤바뀐다.
2. 사탄은 '사랑의 방해자'다.
3. 주님이 행할 것은 주님이 행하신다. 고로 사람이 행할 것은 사람이 행해야 된다. 저마다 자기기 해야 할 일을 하며, 사탄을 바로 알고 예수님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인간의 100% 책임이다.
4. 누구나 자기만 100% 주 뜻대로 행하면, 사탄의 영향권을 벗어나게 되니 사탄을 다스린 입장이 된다.
5. 사탄이 전혀 해를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할 일을 안 하면, 자기 행위로 인해 해를 받고 무너지게 된다.
6.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항상 문제다.
7. 주님은 허락하셨으나 사탄 때문에 못 할 때도 있고, 자기가 할 일을 안 해서 자기 때문에 못 할 때도 있고, 타인의 방해로 못 할 때도 있다.
8.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을 받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없다.
9. 항상 자기가 사탄보다 크고, 타인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라.
10. 자기가 하면 항상 사탄도 물리치고, 타인도 물리친다.

11. 주님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의 편이다.
12. 주님과 일체 되어서 하면 다 할 수 있다.
13. 사탄 주관권을 벗어나면 사탄 주관을 안 받게 되고,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면 자기 주관을 안 받게 된다.
14. 주님 주관권에 들어가면 주님 주관을 받게 된다.
15. 나쁜 주관권을 벗어나는 것이 부활이요, 변화요, 휴거요, 구원이요, 거듭남이다. 이것이 차원을 높인 것이다.
16. 부지런히 행해야만 자기가 만들어진다.
17. 남 만들기는 어려워도 자기 만들기는 쉽다.
18. 만드는 것은 절대적인 메시아 예수님의 시대 말씀으로 만든다. 그러나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만들어진다.
19. 순간 만들려고 하면 잘 못 만든다.
20. 매일 그날그날 할 일을 행하면서 인생은 만드는 것이다.
21. 집을 지을 때는 1년에 지을 것을 빨리 하면 6개월 만에도 짓게 되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그날그날 할 일을 행하면서 만들어야 되기에 오래 걸린다.

22. 자기를 만들다 보면 아예 만들어진 것은 성격이 고쳐져서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게 되고, 혈기를 안 내게 되고, 항상 양 같은 성격으로 행한다. 마치 시계를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 갖다 놔도 계속 작동하듯이, 사람도 한 번 아예 만들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진 대로 작동하게 된다.

23. ‘성격 만들기’다. ‘행위 만들기’다.

24. ‘만들기’와 ‘써먹기’다.

25. 완전히 만들어 놓았어도 써먹어야 된다. 써도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

26. 최대한 빨리 만들고, 최대한 가치 있게 쓰는 것이다.

27. 항상 주님과 마음을 맞춰서 번쩍이면서, 날면서, 뛰면서 쓰여져야 된다.

28. 주님의 육이 되어서 주님의 정신과 마음과 주님의 몸으로 쓰여져야 된다.